

13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에 의한  
갑상선 종양의 면역조직학적 연구

채성원\* · 최 건 · 이상학 · 박지훈 · 최종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배 경 :**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VEGF)는 맥관형성 요소로 여러 종양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갑상선종양은 혈관이 풍부한 종양이며 여포상 암종의 경우 혈관을 통한 전이가 많아 VEGF가 종양으로부터 분비되어 갑상선 종양의 증식, 전이에 관여할 것으로 추측된다.

**목 적 :** VEGF 분비 여부를 갑상선 종양의 다양한 병리조직학적 분류에 따라 나누어 면역조직학적방법에 의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유두상 암종 17례, 여포상 암종 4례, 수질성 암종 2례, 역형성 암종 1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두상 암종과 여포상 암종의 경우 전이 여부에 따른 차이를 ABC방법으로 면역조직학 적 검사하였다.

**결 과 :** 갑상선 종양에 있어 모두 정상 갑상선 조직에 비하여 강한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종양의 종류에 따른 양성 반응 정도는 유두상 암종, 여포상 암종, 수질성 암종과 역형성 암종의 순서이었다. 유두상 암종과 여포상 암종에 있어 전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결 론 :** 따라서 VEGF는 갑상선 종양에 존재하여 증식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여포세포 종양 보다는 여포세포에 많으며, 갑상선 종양의 전이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 경 :** 분화성 갑상선암종은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림프절전이, 국소침습에 의한 슬후 잔류 암 또는 잔여 갑상선 조직에서의 재발로 인하여 치료에 실패하게 된다.

**목 적 :** 일차 수술방법에 따른 재발양상을 조사하고 재발까지의 기간 및 재발환자의 수술적 치료 및 슬후 합병증을 분석하여 재발암의 임상적 특성을 알아보고, 일차치료시 수술방법의 적절한 선택과 재발시 보다 적극적인 치료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85년 3월부터 1998년 8월까지 고려대학교 이비인후-두경부외과에서 갑상선분화암종으로 일차 수술을 시행받고 추적관찰된 225명의 환자중 재발되어 집중 관리된 20명을 대상으로 성별, 나이, 종양의 병리조직학적 소견, 일차 수술방법, 재발부위를 분류하고 재발까지의 기간 및 재수술 방법 및 치료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일차치료후 재발한 환자는 남자 5명, 여자 15명이었고 연령은 18~62세의 분포를 보였으며, 50대가 7례로 가장 많았다. 병리조직학적 분류상 유두상암종이 17례(85.0%), 여포상암종이 3례(15.0%)이었다. 일차 수술은 전적출술 5례, 아전적제술 8례, 편엽적제술이 7례이었으며, 재발부위는 동측 림프절 7례, 반대측 림프절 4례, 국소재발과 림프절전이가 6례, 국소재발과 골, 폐전이가 3례이었다. 재발기간은 3년 이내가 14례(70.0%)로 가장 많았다. 재수술은 갑상선전적출술 4례, 경부청소술만 시행한 경우가 5례, 갑상선전적출술과 경부청소술 9례, 갑상선전적출술과 기관일부절제술을 시행한 경우가 2례이었다. 재발한 모든 환자에서 <sup>131</sup>I 방사성동위원소치료를 시행하였으며, 6례에 대하여는 슬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결 론 :** 분화성 갑상선암종은 일차수술시 정상 갑상선을 포함하여 병변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특히 경부 림프절과 기관 또는 식도의 침범이 있으면 광범위한 절제술과 경부청소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분화성 갑상선암종의  
국소재발양상과 치료결과